

풍력발전 활성화로 부품시장 호조

미국 중심으로 풍력시장 확대 ... 2010년 터빈부품 공급부족 예상

미국이 풍력발전을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풍력부품 생산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현대증권에 따르면, 미국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실시함으로써 경기부양을 노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풍력부품 생산기업인 현진소재, 태웅, 평산, 용현비엠 등이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병화 애널리스트는 “미국은 친환경 전력발전 기업에 대해 세금혜택을 연장해주고, 전력망도 보급할 계획이어서 경기부양책이 통과되면 2009-13년 신규 풍력터빈 설치가 3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3년까지 설치되는 풍력터빈 규모는 2만498MW로, 풍력터빈이 약 34조, 단조품은 2조4000억원의 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다.

또 “오바마 정부의 출현으로 미국, 유럽, 중국, 인디아 풍력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돼 2010년 이후 풍력터빈 단조부품의 공급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현진소재, 태웅, 평산, 용현비엠 등 국내 풍력 단조부품 생산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터빈 제조기업에 납품하고 있어 미국을 비롯한 풍력시장의 성장에 가장 큰 혜택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2/10>